

열두 달의 정원

사계절의 생기가 흐르는 정원
꽃과 작은 생명이 함께하는 사계절 이야기



백지혜 그림책 | 창비 2026

정원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봄에는 작은 꽃망울이 하나둘 피어나고, 여름에는 싱그러운 꽃들이 햇살을 머금고 활짝 피어난다. 가을에는 깊어진 빛깔로 계절의 끝을 알리고, 겨울에는 다음 봄을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고른다. 『열두 달의 정원』은 이렇게 열두 달 동안 피고 지는 꽃들과 그 곁을 찾아오는 나비와 벌, 잠자리 같은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를 화가의 시선으로 담은 그림책이다. 꽃은 저마다 다른 모양과 향기를 품고 피어난다. 꽃을 찾아오는 작은 생명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계절을 함께 살아간다.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꽃과 작은 생명들을 하나씩 만나다 보면,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우리 주변의 자연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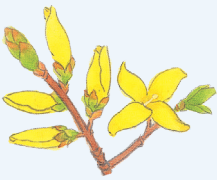


꽃이 피는 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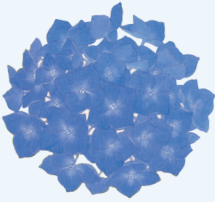
읽기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책을 읽기 전, 그림책에 나오는 꽃들을 먼저 만나 볼까요?
 꽃 그림과 이름을 살펴보고, 어느 계절에 피는 꽃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중 내가 본 적 있는 꽃이 있다면 그때의 추억도 함께 떠올려 봅시다.



- 꽃 이름: 개나리
- 피는 계절:
- 언제, 어디에서 보았나요?
-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 꽃 이름: 수국
- 피는 계절:
- 언제, 어디에서 보았나요?
-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 꽃 이름: 코스모스
- 피는 계절:
- 언제, 어디에서 보았나요?
-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 꽃 이름: 동백
- 피는 계절:
- 언제, 어디에서 보았나요?
-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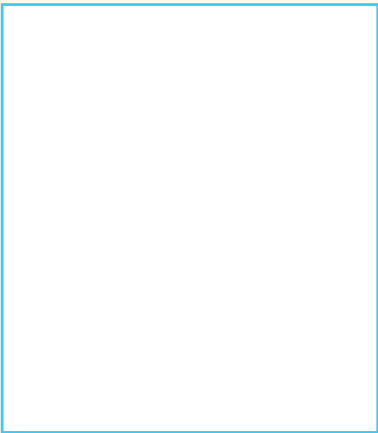
주변 인물을 관찰하기

계절

읽는 중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정원에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꽃을 하나 골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꽃을 따라 그려 보며 특징도 함께 찾아 적어 봅시다.

	• 꽃 이름: • 마음에 드는 이유: • 특징:
--	--

정원에는 나비, 벌, 잠자리처럼 작은 곤충들도 꽃과 함께 살아가요.
정원에서 만난 곤충들을 찾아보고, 기억에 남는 친구를 소개해 봅시다.

곤충 이름	기억에 남는 이유
꿀벌	꿀을 모으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나만의 정원

읽은 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여러분만의 특별한 정원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꽃과 나무, 곤충 등을 자유롭게 떠올리고 그리며
 나만의 정원을 완성해 봅시다.

- 정원 이름:
- 심은 꽃:
- 심은 나무:
- 찾아온 곤충: